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 Mac1 CTP-2400-CMYK





백암산의 여름꽃



계요등/까치수염/꽃며느리밥풀/나도수정란풀/노루발풀/노루오줌/닭의난초/닭의장풀/대흥란/땅나리/때죽나무/미나리아재비/박쥐나무/백양더부살이/범부채/뻐꾹나리/산딸나무/산수국/새박/소엽맥문동/숫잔대/애기천마/약난초/엉겅퀴/원추리/은꿩의다리/일월비비추/자귀나무/자란초/진노랑상사화/짚신나물/참나리/큰도둑놈의갈고리/큰방울새란/타래난초/털중나리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12 Mac1 CTP-2400-CMYK

계요등

학명 | *Paederia scandens* (Lour.) Merrill
꼭두서니과




계요등은 7~8월

닭 오줌 냄새가 나는 꽃

햇볕이 잘 드는 산지나 골짜기에서 잘 자라는 계요등은 이름 그대로 닭 계(鷄), 오줌 뇨(尿), 등나무 등(藤), 즉 닭의 오줌 냄새가 나는 덩굴식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계요등은 줄기와 잎을 비비면 닭 오줌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구렁내덩굴', 똥 시(屎)자를 쓴 '계시등'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 피는 꽃은 흰 바탕에 자주색이 들어가 있는 작고 긴 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요등의 꽃말은 '지혜'인데 작은 꽃이지만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 줄기와 잎에 냄새가 나게 하는 똑똑한 꽃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답니다.



계요등은 7월과 8월 백양사 인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14 Mac1 CTP-2400-CMYK

까치수염

학명 |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앵초과




까치수염은 7~8월

강아지 꼬리 닮은 흰색 꽃

까치수염은 햇볕이 잘 들고 모래와 돌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까치수염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진 꽃차례에 따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차례차례 흰색 꽃을 피우는데, 흰색 꽃이 무수히 달린 모습이 마치 강아지 꼬리처럼 구부러져 있는 있기 때문에 '개 꼬리 풀' 또는 '낭미화'(狼尾花)로도 불린답니다.

까치수염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작은 흰 꽃들이 무리 지어 피어 있어 보고 있으면 올망졸망 모여 있는 꼬마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꽃말도 '동심', '친근한 정' 이라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꽃, 까치수염은 여름철 내내 백암산 전 지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까치수염은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16 Mac1 CTP-2400-CMYK

꽃며느리밥풀

학명 | *Melampyrum roseum* Maximowicz.
현삼과





꽃며느리밥풀은 7~8월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의 한이 담긴 꽃

햇볕이 좋은 숲 속에서 잘 자라는 꽃며느리밥풀은 한해살이풀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지만 모자란 양분을 얻기 위해 숙주식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반더부살이 식물입니다.

꽃며느리밥풀은 꽃의 모양이 붉은 잎술에 밥풀을 두 알 물고 있어 그 이름을 얻었는데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 있답니다.

가난하고 힘들 시절 한 며느리가 밥의 뜸이 잘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밥풀의 맛을 보다가 어른보다 먼저 음식에 손을 댔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 죽게 되었고 그곳에서 꽃며느리밥풀이 피었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한이 스며있어서 그런지 꽃며느리밥풀의 꽃말은 '여인의 한'이랍니다. 꽃며느리밥풀꽃은 며느리밑씻개와 마찬가지로 호된 시집살이를 한 옛 여인들의 아픔이 담긴 꽃이랍니다.





꽃며느리밥풀은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수정란풀

학명 | *Monotropastrum humile (D.Don) Hara*
노루발과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19 Mac1 CTP-2400-CMYK


나도수정란풀은 6~7월

백마의 머리를 닮은 숲 속의 요정

나도수정란풀는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나도수정란풀은 잎이 투명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부생식물로 식물이나 동물의 죽거나 썩은 생명체에서 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간답니다.

맑은 백수정색을 띠고 있는 나도수정란풀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말머리를 닮아 백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나도수정란풀의 꽃말은 '숲 속의 요정' 인데 숲 속 그늘진 곳에 사는 요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는 나도수정초는 기침약이나 호흡기질병, 경련에 쓰기도 하는데 5월에서 6월 초여름에 꽃을 피웁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는 구상란풀과 수정란풀이 있는데 구상란풀은 갈색을 띠고 수정란풀은 가을에 꽃을 피워 구별된답니다.





나도수정란풀은 6월과 7월 남창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20 Mac1 CTP-2400-CMYK

노루발풀

학명 |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eld.
노루발과




노루발풀은 6~7월

은인을 위해 노루가 가져다준 풀

노루발풀은 반그늘의 나무그늘 아래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물입니다. 노루발풀의 이름은 뾰족이 올라온 꽃대에 붙은 꽃이 노루발을 닮았다 하여 붙여졌습니다.

노루발풀에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포수의 총에 맞아 쫓기는 노루를 산골 아낙이 치마폭에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노루는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는데, 얼마 후 이 아낙이 산후출혈로 고생하자 그 노루가 이름 모를 풀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풀이 노루발 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루발풀은 관절염과 지혈 및 해독에 효능이 있습니다.

노루발풀의 꽃말은 '은인' 인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잊지 않은 노루의 이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름날 숲 속에서 만나는 노루발풀은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노루발풀은 6월과 7월 은선동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22 Mac1 CTP-2400-CMYK

누루오줌

학명 | *Astilbe chinensis* (Maxim.) Franchet et Savatier var. chinensis,
범의귀과




노루오줌은 6~7월

노루 배설물 냄새가 나는 분홍색 꽃

노루오줌은 산속 숲 아래나 습기와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노루오줌이란 이름은 식물뿌리를 비비면 나는 냄새가 노루의 배설물 냄새와 비슷해 '노루오줌' 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노루오줌은 마치 가지에 솜털이 붙은 것처럼 연분홍의 꽃들이 무리를 지어 피며, 꽃말은 '기약 없는 사랑' , '정열' 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노루오줌의 어린순은 나물로 해먹고 꽃과 잎, 뿌리 등은 모두 약재로 사용되는데 혈액순환을 돕고 타박상,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결혼부케의 재료로도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하는 꽃이랍니다.



노루오줌은 6월과 7월 천진암 인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24 Mac1 CTP-2400-CMYK

닭의난초

학명 | *Epipactis thunbergii* A.Gray
난초과




닭의난초는 6~7월

닭을 닮은 아름다운 꽃

닭의난초는 햇볕이 잘 들고 부엽질이 풍부하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닭의난초는 다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닭의 부리를 닮았다거나 혹은 토종닭의 깃털색과 닮아서 닭의난초로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량종이 많아서 우리나라 토종닭을 보기 힘든 실정이지만, 아름다운 닭의난초를 보면서 함께 토종닭의 깃털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닭의난초의 꽃말은 '숲 속의 요정' 인데 숲 속에 피어난 닭의난초의 모습은 언뜻 모자를 쓴 요정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닭의난초는 황갈색 꽃이 대표적이지만 남부지방은 노란색에 가깝고, 중부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붉은색에 가까워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신기한 꽃이랍니다.



닭의난초는 6월과 7월 은선동 습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26 Mac1 CTP-2400-CMYK

닭의장풀

학명 | *Commelina communis* Linne.
닭의장풀과




닭의장풀은 7~8월

닭 벼슬 모양을 닮은 꽃

닭의장풀은 반그늘이나 양지의 들과 숲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년생 식물입니다. 닭의장풀은 닭장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꽃잎의 모양새가 닭의 볏을 닮아 '닭의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닭개비라고도 부릅니다.

닭의장풀은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마디가 있는 줄기를 물에 꽂으면 금세 뿌리를 내려 당나라 시인 두보는 '꽃이 피는 대나무'라고 해서 수반(水盤)에 꽂아 키우기도 했답니다.

닭의장풀은 짙은 하늘색 꽃을 피우는데 흰색꽃을 피는 닭의장풀도 있답니다. 닭의장풀의 꽃말은 '순간의 즐거움'인데 숲 속에서 닭의장풀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닭의장풀은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흥란

학명 | *Cymbidium nipponicum* (Franch. et Sav.) Makino
난초과





대흥란은 6~7월

해남 대흥사에서 발견된 부생식물

대흥란은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숲 속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나무 아래에서 주로 자랍니다. 대흥란은 자기 힘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의 사체에서 양분을 얻는 부생식물입니다.

대흥란은 해남 대흥사 주변에서 최초로 채집되어 '대흥란'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우리나라 특산종이자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으로 개체 수가 많지 않은 귀한 식물입니다.

7~8월에 흰색 바탕에 홍자색의 무늬를 가지고 피는 대흥란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해야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우리꽃이랍니다.



대흥란은 6월과 7월 남창 자연관찰로 인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30 Mac1 CTP-2400-CMYK

땅나리

학명 | *Lilium callosum* Siebold et Zuccarini.
백합과





발랄한 숲 속의 미소천사

땅나리는 숲 속 반그늘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나으리란 의미를 가진 나리꽃 중 크기가 작은 땅나리는 꽃이 땅을 바라보고 있어 '땅나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꽃이 하늘을 보고 있는 하늘나리, 옆을 보고 있는 중나리와 구분할 수 있는 땅나리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땅나리는 6~7월에 주황색의 작고 귀여운 꽃을 피웁니다.

숲 속에서 땅나리를 발견하면 발랄하고 귀여운 소녀가 떠오르게 되는데, 꽃말인 '발랄'과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름날 백암산에서 황적색으로 피는 땅나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땅나리는 6월과 7월 입암산성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32 Mac1 CTP-2400-CMYK

때죽나무

학명 | *Styrax japonica* Siebold et Zuccarini
때죽나무과







물고기를 잡는 독성을 가진 꽃나무

때죽나무는 양지 또는 반음지의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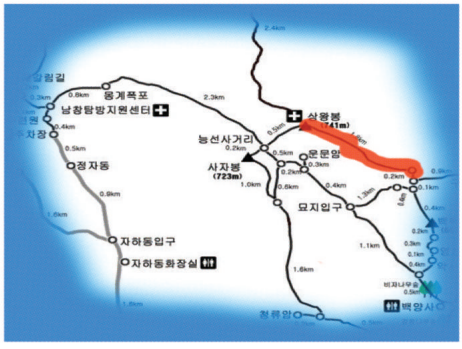
때죽나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독성이 있는 열매를 냇가에 넣으면 물고기가 떼로 죽어 때죽나무로 불린다는 설과 열매를 보면 반질반질한 부분이 마치 스님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때중나무로 불리다가 오늘에 와서 때죽나무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때죽나무의 꽃말은 '겸손' 인데 그 이유는 보통 꽃이 피면 하늘을 향해 피는데 때죽나무의 꽃은 아래를 향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춘다는 뜻으로 '겸손' 이라는 꽃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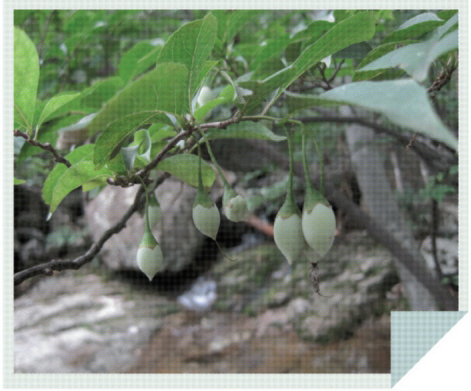
여름철 때죽나무 꽃이 피면 숲 속은 온통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달콤한 향기가 숲 속에서 느껴지면 고개를 들어 쳐다보세요. 아마도 때죽나무가 겸손한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를 할 겁니다.



때죽나무는 6월과 7월 상왕봉 능선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나리아재비

학명 | *Ranunculus japonicus* Thunberg
미나리아재비과





미나리아재비는 6~7월

진노랑의 천진난만함을 지닌 꽃

미나리아재비는 햇볕이 잘 드는 약간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미나리아재비의 이름을 풀어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물을 뜻하는 말인 '미' 와 나물을 뜻하는 말인 '나리' 아저씨의 낮춤말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말인 '아재비' 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미나리아재비는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친근한 식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미나리아재비의 꽃말은 '천진난만' 입니다. 윤기가 나는 진노랑의 작은 꽃을 보고 있으면 꽃말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나리아재비에는 독성이 있으나 간염으로 인한 황달을 치료하고 눈에 낀 백태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며, 연한 순은 나물로 먹는답니다.



미나리아재비는 6월과 7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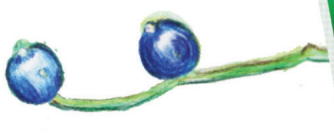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36 Mac1 CTP-2400-CMYK

박쥐나무

학명 | *Alangium platanifolium* (Sieb. et Zucc.) Harms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과









박쥐나무는 6~7월

복을 부르는 박쥐를 닮은 꽃

박쥐나무는 반그늘의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랍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모습이 동굴에서 거꾸로 있는 박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박쥐처럼 박쥐나무의 꽃은 잎 뒤에 숨어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박쥐나무의 꽃말은 '부귀' 입니다. 박쥐는 옛날부터 복을 부르는, 특히 재물을 늘려주는 상징동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쥐나무를 복을 불러오는 나무라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박쥐나무 잎과 줄기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유기산 아미노산 수지가 함유되어 치통, 편두통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쥐나무의 연한 잎은 나물 또는 장아찌를 담아 먹습니다.



박쥐나무는 6월과 7월 백양 자연관찰로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38 Mac1 CTP-2400-CMYK

백양더부살이

학명 | *Orobanche filicicola* Nakai
열당과




백양더부살이는 6~7월

쑥의 양분 먹고사는 더부살이

쑥이 있는 곳의 풀 속에서 자라는 백양더부살이는 극히 드물게 자라는 기생식물로 쑥 뿌리에 자신의 뿌리를 내려 쑥의 양분을 먹고 사는 일년생 더부살이 식물입니다.

일제 강점기일 때 식물학자인 나카이 다케노신이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하여 백양더부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된 후 그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아 베일에 싸인 환상의 식물이었지만 2000년도에 발견되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식물입니다.

백양더부살이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생육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식물로 환경부 멸종위기 동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양더부살이를 발견하신다면 눈으로만 보시고 백양더부살이는 꼭 지켜주실 거죠?



백양더부살이는 6월과 7월 남창계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40 Mac1 CTP-2400-CMYK

범부채

학명 | *Belamcanda chinensis* (L.) De Candolle
붓꽃과




범부채는 7~8월

호랑이 얼룩무늬를 지닌 꽃

범부채는 물 빠짐이 좋고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숲 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범부채란 이름은 잎이 펴지는 모습이 부채와 같고 주황색의 꽃잎 바탕에 나타나는 무늬가 호랑이와 닮았다 하여 범부채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무늬 때문에 범부채를 표범꽃이라 부른답니다.

범부채의 꽃말은 '정성어린 사랑 '입니다. 아마도 열매를 맺을 때 꽃잎이 비틀어지는데 이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꼭 싸매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꽃말이 붙여진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름철 백암산의 숲 속에서 화려하면서도 이국적인 범부채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범부채는 7월과 8월 백양사 성보박물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42 Mac1 CTP-2400-CMYK

뻐꾹나리

학명 | *Tricyrtis macropoda* Miquel
백합과




뻐꾹나리는 7~8월

뻐꾸기의 무늬를 닮은 꽃

뻐꾹나리는 반그늘에 습기가 많은 숲 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뻐꾹나리는 흰색 꽃의 자주색 반점이 마치 뻐꾸기의 가슴 털 무늬를 닮아서, 또는 뻐꾸기가 한참 번식할 무렵 피는 꽃이어서 뻐꾹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마치 하얀색에 자주색 무늬가 있는 드레스를 차려입은 숙녀의 모습을 한 뻐꾹나리의 꽃말은 '영원히 당신의 것' 입니다.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로 해 먹을 수 있는 뻐꾹나리는 바람 부는 날이면 마치 무도회의 무희들처럼 바람을 따라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여러분들도 뻐꾹나리의 무도회에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뻐꾹나리는 7월과 8월 입암산성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44 Mac1 CTP-2400-CMYK

산딸나무

학명 | *Cornus kousa* Buerger et Hance
층층나무과





산딸나무는 6~월

생존전략이 뛰어난 십자가 나무

산딸나무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숲 속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산딸나무는 열매가 꼭 산딸기와 같다고 해서 산딸나무가 되었답니다.

산딸나무의 꽃은 워낙 작다 보니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 꽃을 포장해야 했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흰색 부분은 꽃받침이 변형된 기관으로 식물학적으로는 포(苞)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산딸나무의 꽃말은 '견고' 인데 아마도 나무의 내구성이 좋고 단단해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딸나무는 십자가 나무라고도 하는데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의 나무가 산딸나무라고 하고 산딸나무꽃의 모습도 십자가를 닮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딸나무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산딸나무는 6월과 7월 남창계곡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3:59 PM 페이지146 Mac1 CTP-2400-CMYK

산수국

학명 |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inge var. acuminata (Siebold et Zucc.) Makino
범의귀과




산수국은 6~7월

도깨비불을 닮은 꽃

산골짜기나 돌무더기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산수국은 작은 키 나무로 산(山)에서 자라고, 물(水)을 좋아하며, 국화꽃(菊)처럼 풍성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산수국의 꽃은 암술이 있는 진짜 꽃과 벌, 나비를 유혹하기 위한 가짜 꽃이 있는데, 그중 가짜 꽃은 꽃가루받이를 끝낸 후에는 얼굴을 돌려버려 '뒷모습이 아름다운 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산수국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가짜 꽃을 진짜 꽃이라고 착각하기 쉽답니다.

산수국의 꽃말은 '변하기 쉬운 마음' 인데, 수정 후 가짜 꽃이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변심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에서는 꽃의 색깔이 파란색의 도깨비불을 닮았고 꽃의 색깔이 자주 변한다 하여 '도깨비꽃' 이라 불리며, 집 주위에는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수국은 6월과 7월 운문암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48 Macl CTP-2400-CMYK

새박

학명 | *Melothria japonica* Maximowicz
박과




새박은 7~8월

새알 닮은 열매

새박은 습지 근처 풀밭에서 자라며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살아가는 한해살이 덩굴식물입니다.

새박은 열매모양이 새알과 같다고 해서 새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우리가 팥죽 속에 넣는 새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새알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박은 한약재로도 많이 활용되는데 이뇨제, 황달,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 뿌리는 관절염, 사지마비, 근육경련에도 활용이 된답니다.

새박은 희고 작은 꽃이 7~8월에 피는데 덩굴식물이라 보니 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기가 너무나 가늘어 연약하게만 보이는 새박! 그래도 여러 가지 약재로 사용되는 독특한 식물이랍니다.





새박은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50 Mac1 CTP-2400-CMYK

소엽맥문동

학명 | *Ophiopogon japonicus* (Linne f.) KerGawler
백합과







불로초로 불리는 꽃

풀숲의 반음지 혹은 양지에서 자라는 소엽맥문동은 일반적인 맥문동보다 그 잎이 작고 짙은 청색의 구슬모양의 열매가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원래 맥문동은 뿌리가 보리와 닮았고 겨울에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맥문동 혹은 맥동(麥冬), 문동이라고 한답니다.

소엽맥문동에는 진시황과 얽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진시황에게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부리에는 풀잎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진시황은 방술이 능한 귀곡자에게 저게 무엇이냐고 묻자 귀곡자는 불로초의 잎이라 대답했답니다. 진시황은 그 풀을 마지막까지 찾아 돌아다녔지만 결국에는 못 찾고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이 찾으려 했던 풀, 만물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고 푸름을 유지하는 생명력을 가진 불로초가 바로 소엽맥문동이라고 합니다.



소엽맥문동은 6월과 7월 백양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52 Mac1 CTP-2400-CMYK

숫잔대

학명 | *Lobelia sessilifolia* Lambert
초롱꽃과




숫잔대는 6월~7월

습지에서 자라는 보라색 가면

숫잔대는 주변에 습도가 높고 소형 늪지대와 같이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숫잔대라는 이름은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습잔대라고 하다가 변화되어서 숫잔대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숫잔대는 한여름에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5개의 꽃받침 중 위에는 두 개, 밑에는 3개로 갈라져 마치 수염이나 가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숫잔대는 편도선염과 기관지염에 효용이 있는 약초로 꽃말은 '가면', '거짓' 이라고 합니다.



숫잔대는 6월에서 7월 은선동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애기천마

학명 | *Hetaeria sikokiana* (Mak. et F. Maek.) Tuyama
난초과




애기천마는 6~7월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천마(天馬)

애기천마는 깊은 숲 속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애기천마는 엽록소가 없어 생물의 사체에서 영양분을 얻는 부생식물입니다.

애기천마의 크기는 7cm 정도인데 작은 천마라는 의미로 '애기천마'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기천마는 주로 제주도에 사는 식물로 내륙에는 백암산이 얼마 안 되는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천마는 하늘에서 천마가 가져온 약초라 해서 천마(天馬)라 하다가 천마(天麻)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홀로 내려와서 그러한지 천마의 꽃말은 '외로움' 입니다.

애기천마의 꽃은 7~8월에 피며, 연한 홍갈색으로 1.5~5cm인 이삭에 5~15개가 달려 웬만큼 눈이 밝지 않으면 찾기 힘든 꽃으로 희귀한 식물입니다.



애기천마는 6월에서 7월 옹달샘 갈림길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56 Mac1 CTP-2400-CMYK

약난초

학명 | *Cremastra appendiculata* (D. Don) Makino
난초과




약난초는 6~7월

숲 속의 의사

약난초는 숲 속의 약간 습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약난초는 이름 그대로 옛날부터 한방에서 위염, 장염, 종기 및 부스럼 치료제로 사용된 난초라 하여 '약난초'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난초는 줄기는 없이 난초와 같이 긴 잎이 하나 자라고, 꽃은 꽃대가 올라와 15~20개 정도 마치 이삭이 열리는 것처럼 황갈색으로 핍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따뜻한 곳에서 주로 자라는 약난초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약초로 '인연'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답니다.



약난초는 6월과 7월 백암산 국기단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58 Mac1 CTP-2400-CMYK

엉겅퀴

학명 | *Cirsium maackii* Maximowicz
국화과




엉겅퀴는 7~8월

나라를 구한 꽃

엉겅퀴는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보통 양지에서 자라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엉겅퀴는 피를 멈추게 하는 성분이 있어 지혈제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피를 엉기게 한다고 하여 엉겅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엉겅퀴는 나라를 구한 꽃으로 불리는데 13세기 덴마크와 스코틀랜드 전쟁 당시, 급습하던 덴마크 병사가 엉겅퀴를 밟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자,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이를 눈치 채고 공격해 승리하게 된 후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엉겅퀴의 꽃말은 '엄격', '근엄' '독립' 인데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에서 꽃말을 만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엉겅퀴는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60 Mac1 CTP-2400-CMYK

원추리

학명 | *Hemerocallis aurantiaca* Baker
백합과




원추리는 7~8월

시름을 잊게 해주는 꽃

원추리는 습도가 높고 토양 비옥도가 좋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원추리의 꽃말은 '망각' 인데 원추리를 먹으면 의식이 몽롱해져 그러한 꽃말이 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 한다고 해서 망우초(忘憂草)라 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해서 의남초(宜男草)라고 한답니다. 원추리는 한방에서 훤초(萱草)라고 하며 습열(濕熱)을 제거하고 해독(解毒)하며 혈(血)을 식히고 수습(水濕)을 빼내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훤초-원초-원추리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초여름 진노랑색으로 피는 원추리는 그 약효가 아니더라도 꽃이 매우 아름다워 시름을 잊게 해줄 만 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원추리를 보며 슬픔을 잠시 잊어 보는 건 어떨까요?



원추리는 7월과 8월 사자봉 능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62 Mac1 CTP-2400-CMYK

은꿩의다리

학명 | *Thalictrum actaefolium* Siebold et Zuccarini
미나리아재비과





은꿩의다리는 7~8월

여름날 숲 속의 키다리 인형

은꿩의다리는 양지바른 산 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물입니다. 연약한 가지의 모습이 꿩의 다리를 닮았고 꽃의 색깔이 은색을 띠어 '은꿩의다리'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꿩의다리는 자주꿩의다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은꿩의다리의 줄기는 녹색이고, 자주꿩의다리의 줄기는 자주색이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은꿩의다리는 한여름인 7~8월에 개화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솜털을 달고 있는 인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꽃말이 '키다리 인형' 이라고 합니다. 7~8월 가느다란 줄기 끝에 흔들리는 은꿩의다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꿩의다리는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64 Mac1 CTP-2400-CMYK

일월비비추

학명 | *Hosta capitata* (Koidz.) Nakai
백합과




일월비비추는 6~7월

숲 속에서 만나는 신비한 사랑

일월비비추는 비옥한 반그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입니다. 일월이란 말은 경북 일월산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비비란 잎이 비비 꼬이는 모습을, 추는 나물을 의미하는 취가 변한 것이라 합니다.

일월비비추는 6~7월 연한 보라색으로 피는데 꽃말은 '신비한 사랑' 입니다.

일월비비추와 관련된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옛날 한 효녀가 병든 아버지가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녀를 사모했던 한 청년이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게 되었고 둘은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 청년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효녀는 끝까지 청년을 기다리며 일월비비추에 기도를 하였는데 하늘도 그 정성에 감동했는지 청년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일월비비추는 6월과 7월 능선사거리 탐방로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66 Mac1 CTP-2400-CMYK

자귀나무

학명 | *Albizzia julibrissin* Durazzini
콩과




자귀나무는 6~7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꽃

자귀나무는 물 빠짐이 좋은 양지쪽에서 자랍니다.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모든 잎이 짝을 이뤄 합쳐져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합혼수' (合婚樹)라고도 합니다.

자귀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옛날 혼인이 늦어 걱정하는 청년이 어느 날 언덕길을 넘다가 어떤 집의 자귀나무 꽃을 구경하였는데 그때 그 집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하였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청년은 술집 과부의 유혹에 빠져 집에 돌아가지 않자 슬픔에 빠진 아내는 백일기도를 하였답니다. 백일 째 아내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자귀나무 꽃을 방에 두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자 남편이 돌아와 사람들은 자귀꽃으로 맺은 인연이 자귀꽃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자귀나무를 '부부금실나무' 라고 부루게 되었답니다.

자귀나무의 꽃말은 '환희', '가슴 두근거림' 인데 신혼의 두근거림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꽃이라 그런 꽃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귀나무는 6월과 7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68 Mac1 CTP-2400-CMYK

자란초

학명 | *Ajuga spectabilis* Nakai
꿀풀과




자란초는 6월

행복을 주는 자주색 꽃

자란초는 해발 500m 이상의 습기가 많은 그늘진 낙엽수림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자란초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자색의 난초와 비슷한 식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란초는 다른 말로 '큰잎조개나물' 이라고도 하는데 모양이 조개나물과 비슷하면서도 잎이 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자란초는 6월에 연홍색과 자주색의 꽃을 피웁니다. 자란초의 꽃말은 '행복' 인데 백암산의 높은 산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 이 특별한 꽃을 보면 여러분은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란초는 6월에 능선사거리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70 Mac1 CTP-2400-CMYK

진노랑상사화

학명 |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수선화과





진노랑상사화는 6~7월

백암산을 대표하는 상사화

진노랑상사화는 물기가 많고 자갈이 많은 수풀 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진노랑상사화는 백암산을 대표하는 식물로 내장산국립공원의 깃대종입니다.

꽃피는 시기와 잎이 나는 시기가 달라 꽃과 잎이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상사화(相思花) 중 가장 크고 화려한 진노랑상사화는 한반도 고유종이며 서식지가 전라남도 백암산과 전라북도 내장산에 국한되어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이기 때문에 꽃말은 '이별' 이지만 언제까지나 백암산에서 이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소중한 우리꽃입니다.



진노랑상사화는 6월에서 7월 백양 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72 Mac1 CTP-2400-CMYK

짚신나물

학명 | *Agrimonia pilosa* Ledeb.
장미과




짚신나물은 7~8월

짚신으로 이곳 저곳으로 여행하는 꽃

짚신나물은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짚신나물은 씨앗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옛날 짚신에 붙어 이곳저곳으로 옮겨져 짚신나물이라고 한답니다.

짚신나물의 꽃말은 '감사'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꽃말과 함께 내려오는 전설이 있답니다. 옛날에 사이좋은 친구가 같이 과거를 보러 가다 한 친구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코와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니 멈추지 않아 하늘에 친구를 살려 달라 소리쳤답니다. 그때 두루미 한 마리가 입에 물고 온 것을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떨어뜨린 것을 입에 넣고 씹어 먹자 신기하게도 흐르던 피가 멎었답니다. 병이 낳은 두 친구는 다시 과거를 보러 갔고 나란히 과거급제 하였답니다.

전설에도 나오다시피 짚신나물은 지혈의 효과도 있고 설사, 산후통증, 위궤양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꽃이랍니다.



짚신나물은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참나리

학명 | *Lilium lancifolium* Thunberg
백합과




참나리는 7~8월

다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진짜 나리

참나리는 양지바른 숲 속과 들판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참나리라는 이름은 나리꽃 중에서 크고 아름다워 '진짜 나리'란 의미로 '참나리'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나리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해서인지 참나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참나리는 다양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큰 알뿌리가 아닌 작은 알뿌리를 많이 맺어 번식하기도 하고 줄기에 잎겨드랑이마다 주아(珠芽:씨눈)를 달고 있어 이 주아가 떨어지면 새로운 개체로 자란다고 합니다.

7~8월에 황적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참나리는 논둑이나 밭둑, 담장 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꽃이랍니다.



참나리는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76 Mac1 CTP-2400-CMYK

큰도둑놈의갈고리

학명 | *Desmodium oldhami* Oliver
콩과






큰도둑놈의갈고리는 7~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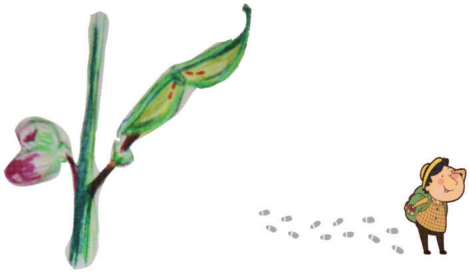
이름 때문에 오해받는 꽃

큰도둑놈의갈고리는 산속이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큰도둑놈의갈고리란 이름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도둑놈의갈고리라는 이름은 씨앗 표면에 갈고리 모양의 털이 달려있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번식하는 특징을 '도둑' 에 빗대어 도둑놈의갈고리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분홍색의 꽃은 아주 작고 예쁘답니다.

큰도둑놈의갈고리의 열매는 선글라스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마치 선글라스를 쓴 도둑의 모습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큰도둑놈의갈고리와 도둑놈의갈고리는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잎자루 끝에 잎이 5개 이상이고 크기가 큰 것을 큰도둑놈의갈고리라고 합니다.

7~8월에 꽃이 피고 독특한 열매를 맺는 큰도둑놈의갈고리는 꽃말이 '홍분' 이랍니다.


큰도둑놈의갈고리는 7월과 8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78 Mac1 CTP-2400-CMYK

큰방울새란

학명 | *Pogonia japonica* Reichenbach fil.
난초과




큰방울새란은 6~7월

습지에서 피어난 방울새

큰방울새란은 햇볕이 잘 드는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꽃이 무척 아름다운 난초과 식물입니다. 큰방울새란이란 이름은 꽃의 모양이 방울새와 닮아 '방울새란' 이라고 불린답니다.

큰방울새란과 방울새란은 크기와 꽃으로 구별하는데 큰방울새란이 방울새란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꽃도 더 화려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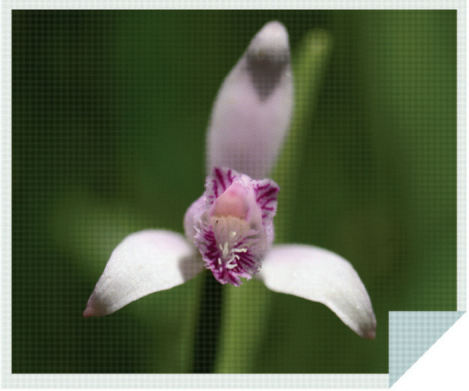
6~7월에 꽃이 피는 큰방울새란은 대표적인 습지식물로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식물입니다. 꽃말은 '미덕' 인데 여러분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꽃을 지켜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큰방울새란은 6월과 7월 은선동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80 Mac1 CTP-2400-CMYK

타래난초

학명 |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난초과





타래난초는 6~7월

추억을 간직한 자식사랑의 꽃

타래난초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타래난초는 꽃대가 나사 모양으로 틀어지면서 위로 올라가 꽃을 피워 붙여진 이름입니다.

타래난초는 부모의 자식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죽은 부모가 이승에 남아 있는 자식이 걱정되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타래난초가 되어 이승에 남아 하나하나 꽃을 꼬아가며 자식의 복을 빌어주고 구천으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래난초의 꽃말은 '추억'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식들과 즐겁게 보냈었던 '추억' 을 간직한 부모가 타래난초가 되어 자식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암산 자락에서 부모의 사랑이 담긴 타래난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타래난초는 6월과 7월 남창계곡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82 Mac1 CTP-2400-CMYK

털중나리

학명 | *Lilium amabile* Palibin
백합과




털중나리는 7~8월

여름을 잊게 해주는 화려한 꽃

털중나리는 양지 혹은 반그늘의 모래 성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털중나리의 이름은 땅나리와 하늘나리와 다르게 꽃이 중간을 보고 있고 잎에 잔털이 많이 나 있어 붙여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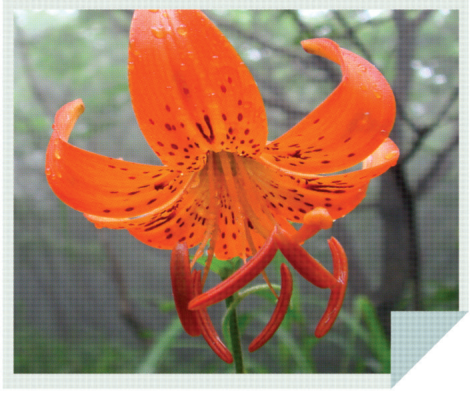
꽃이 황적색이고 자주색 반점이 있는 털중나리는 관상용으로 재배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털중나리는 참나리보다는 키가 작고 몸 전체에 털이나 있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름내내 피어 있는 털중나리는 그 아름다움으로 무더위를 씻어주는 고마운 꽃이랍니다.



털중나리는 7월과 8월 백암산 전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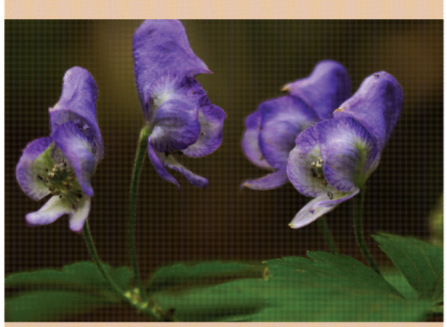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84 Macl CTP-2400-CMYK





백암산의 가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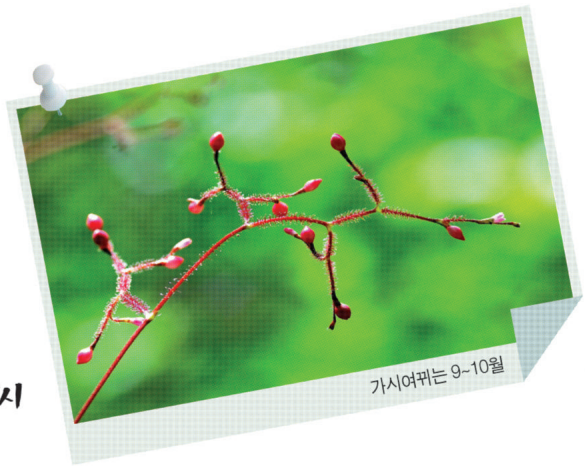
가시여뀌/갈퀴나물/고마리/며느리밑씻개/물매화풀/물봉선/
백양꽃/쑥부쟁이/용담/이고들빼기/이질풀/투구꽃/하늘말나리

백암산의 가을

가시여뀌

학명 | *Persicaria fauriei(Lev.& Vnt.) Nakai*
마디풀과




가시여뀌는 9~10월

독을 품고 있는 진분홍 아가씨

산지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가시여뀌는 다른 여뀌들과 달리 줄기에 붉은색 가는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그래서 가시여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뀌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시여뀌도 줄기나 뿌리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찧어 물에 넣으면 물고기가 기절해 '물고기를 잡는 풀', '소도 먹지 않는 풀'로 알려졌습니다.

가시여뀌는 늦여름에서 초가을인 8~9월에 줄기 끝이나 잎겨드랑이에 작은 원뿔 모양의 진분홍 꽃이 피며, 열매는 10월의 세모 모양의 흰색으로 열립니다.

가시여뀌의 꽃말은 "학업의 마침"인데, 가을날 1년의 학업을 끝맺음하는 것처럼 가시여뀌의 생태도 봄여름을 지나 가을에 꽃과 열매를 맺는답니다.



가시여뀌는 9월과 10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88 Mac1 CTP-2400-CMYK

갈퀴나물

학명 | *Vicia amoena* Fischer
콩과




갈퀴나물은 8~9월

갈퀴모양의 덩굴손

햇볕이 잘 들고 습기가 많은 풀밭이나 키 작은 나무군락에서 잘 자라는 갈퀴나무는 잎 끝에 2~3개의 갈퀴를 닮은 덩굴손이 나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갈퀴나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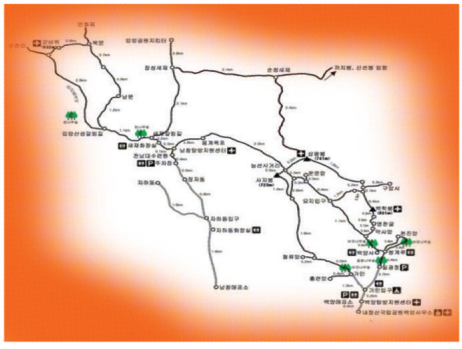
한여름에서 초가을인 6~9월 사이에 분홍색이 도는 자주색 꽃이 피는데 특히 꿀이 많아 갈퀴나물 군락에는 벌들이 자주 모입니다. 갈퀴나물은 덩굴손을 이용하여 주변 식물을 감고 자라고 주변에 다른 식물이 없으면 서로서로 감고 자랍니다. 갈퀴나물은 약재로도 사용되는데, 말려서 관절통 등의 약으로 사용한답니다.

꽃말은 '용사의 모자' 인데 꽃의 모양이 서양 병사들의 모자를 닮아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날 숲 속 다른 나무들을 향해 용사처럼 씩씩하게 전진하는 갈퀴나물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갈퀴나물은 8월과 9월 백암산 전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90 Mac1 CTP-2400-CMYK

고마리

학명 |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at Zucc.) H.Gross
마디풀과




고마리는 9~10월

숲속의 물을 정화시키는 고마운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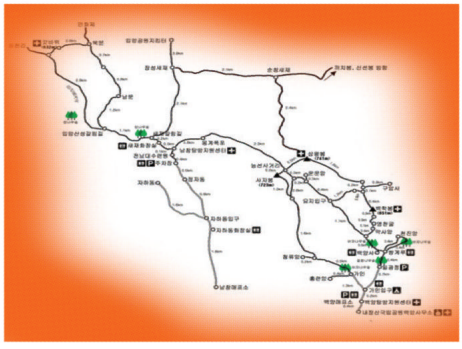
양지바르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고마리는 물가의 나쁜 환경에서도 번식을 잘해 이제 그만 됐다는 의미로 '그만이풀' 이라고 하던 것이 '고마니' 를 거쳐 '고마리' 가 됐다고 합니다. 또 더러운 물을 정화해 주는 '고마운 풀' 이라는 의미로 '고마리' 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된 축산폐수를 고마리가 사는 수로에 통과하도록 하였더니 1급수가 됐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풀임이 분명합니다.

"꿀의 원천"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고마리는 꽃의 모양이 작지만 뭉쳐서 핀 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귀엽고 앙증맞은 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숲 속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꽃 고마리의 작은 얼굴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리는 9월과 10월 백암산 전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92 Mac1 CTP-2400-CMYK

며느리밑씻개

학명 | *Persicaria senticosa* (Franch. et Sav.) H.Gross
마디풀과





며느리밑씻개는 9~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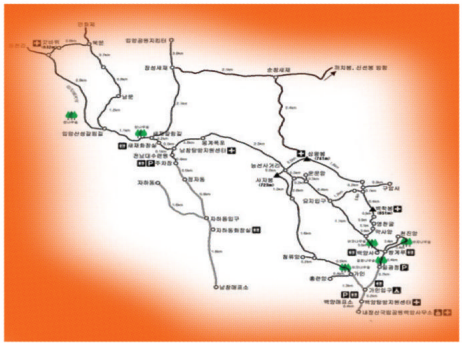
구박받는 며느리 사연 담은 고약한 이름

며느리밑씻개는 햇볕이 좋은 숲 속에서 잘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며느리밑씻개의 줄기에는 붉은빛을 띤 갈고리 같은 가시가 촘촘히 나 있어 옛날 풀밭에서 뒷일을 보다 가시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 반갑지 않은 식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미운 시어머니가 뒷일을 본 며느리에게 닦으라고 이 풀을 주었다고 해서 며느리밑씻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며느리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면 시아버지가 일은 안 하고 화장실만 간다고 이 풀을 뒷간 근처에 심어 놓고 휴지 대신 사용하게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며느리밑씻개는 멍든 피를 풀어주며 해독작용을 하는 약초입니다. 타박상, 습진, 온몸이 가려운 피부병, 진물이 흐르고 허는 태독(胎毒) 및 치질에도 효능이 있는 식물이랍니다. 뒷일 볼 때 가시 때문에 달갑지 않은 취급을 받아왔지만, 알고 보면 치질에도 쓰이는 고마운 식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느리밑씻개는 9월과 10월 백암산 전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94 Mac1 CTP-2400-CMYK

물매화풀

학명 | *Parnassia palustris* Linne.
범의귀과






물매화풀은 9~10월

청초한 가을 신부 모습, 야생화의 여왕

숲 속 물가나 습기가 많은 습지에서 잘 자라는 물매화풀은 꽃 모양이 마치 매화와 같다고 하여 '물매화풀' 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에 피는 물매화풀은 긴 꽃대에 아름다운 흰 꽃이 피어나 가을의 신부를 연상케 한답니다. 대부분 암술과 수술이 흰색이지만 암술이 마치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붉은 것이 있어 곱게 화장한 새 신부 같습니다.

물매화풀의 꽃말은 '고결, 정조' 인데 청초한 가을 신부의 모습을 한 물매화풀과 어울리는 꽃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꽃이 아름다워서인지 원래 하늘나라에 살고 있던 선녀인데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지상으로 떨어져 물매화풀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물매화풀은 9월과 10월 은선동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96 Mac1 CTP-2400-CMYK

물봉선

학명 | *Impatiens textori* Miquel
물봉선화과





물봉선은 9~10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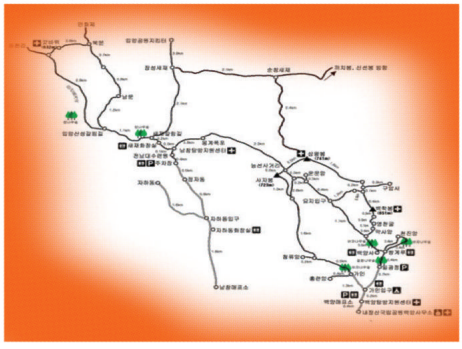
골짜기나 물가 축축한 곳에서 무리 지어 자라는 물봉선은 꽃의 모양이 마치 봉황을 닮았다 하여 봉선(鳳仙)이라 하고 특히 물가에 피는 봉선화라 하여 물봉선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봉선화의 씨앗은 급성자(急性子)라고 하는데 작은 꼬투리처럼 생긴 열매를 살짝만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톡 터져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꽃말 역시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봉선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올림포스 궁전 연회에서 황금 사과를 훔쳤다는 누명을 쓴 한 여인이 쫓겨나 결백을 밝혀내지 못하고 죽어 봉선화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봉선화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씨주머니를 터트려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여 결백을 증명하였답니다. 물봉선은 초가을 붉은색으로 피어나지만, 노란색으로 피는 노란물봉선과 흰색으로 피는 흰물봉선도 있답니다.



물봉선은 9월과 10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198 Macl CTP-2400-CMYK

백양꽃

학명 | *Lycoris sanguinea Maximowicz var. koreana* (Nak.) T. Koyama
수선화과




백양꽃은 9월

백양산에서 처음 발견된 상사화

꽃과 잎이 만나지 않아 서로 그리워하는 상사화에 속한 백양꽃은 백암산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되어 백양꽃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숲 속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백양꽃은 가재무릇, 가을가재무릇으로도 불리는데, 상사화 속 중에서 가장 작고 왜소하지만, 기품을 풍기는 꽃이기도 합니다.

벽돌색의 꽃이 피는 백양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특산종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꽃입니다. 백양꽃의 알뿌리는 다른 상사화들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되는데 거담, 이뇨, 해독의 작용을 한답니다.




백양꽃은 9월에 백양사 인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200 Mac1 CTP-2400-CMYK

쑥부쟁이

학명 | *Kalimeris yomena* Kitamura.
국화과




쑥부쟁이는 9~10월

배고픔을 해결해준 들국화

들국화라 많이 불리는 쑥부쟁이는 반그늘 및 양지의 숲 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쑥부쟁이는 가난한 시절 쑥과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었던 식물입니다.

쑥부쟁이의 이름은 쑥을 캐는 불쟁이의 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불쟁이는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 대장장이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 큰딸이 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하여 매일 쑥을 뜯어 사람들은 쑥부쟁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딸은 사냥꾼과 사랑에 빠졌고 다시 돌아온다던 사냥꾼이 오지 않자 딸은 큰 시름에 빠졌답니다. 그래도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쑥을 뜯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절벽에 발을 헛디뎌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그 자리에서 이상한 꽃이 나오자 사람들은 그 꽃을 쑥부쟁이라 불렀답니다.

쑥부쟁이의 꽃말은 '그리움', '기다림' 인데 쑥부쟁이의 슬픈 전설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쑥부쟁이는 어려운 시절 배고픔을 해결해준 친근한 우리 꽃입니다.





쑥부쟁이는 9월과 10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202 Mac1 CTP-2400-CMYK

용담

학명 | *Gentiana scabra Bunge var. buergeri* (Miq.) Maximowicz
용담과




용담은 8~9월

가을빛을 닮은 용의 쓸개

용담은 풀숲이나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용담이라는 이름은 곰의 쓸개인 웅담보다 쓰다고 해서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의 쓸개인 '용담'(龍膽)이 됐다고 합니다.

용담에 관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가난하고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와 토끼 같은 짐승을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어느 겨울 산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약한 짐승이 구해준 보답으로 약초를 하나 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그 뿌리를 약으로 팔아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뿌리가 용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용담의 뿌리는 소화불량, 위장병, 고혈압, 종기 등 다양한 처방에 쓰이는 한약재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피어나는 용담은 이름의 의미와 달리 꽃말은 '슬픈 그대가 좋아'랍니다. 다른 꽃들이 지기 시작할 때 숲 속에서 진한 푸른빛으로 피는 용담은 외롭고 쓸쓸한 여러분의 길동무가 될 것입니다.



용담은 8월과 9월 은선동 습지 부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204 Mac1 CTP-2400-CMYK

이고들빼기

학명 | *Youngia denticulata* (Houtt.) Kitamura
국화과




이고들빼기는 9~10월

아이들 앞니를 닮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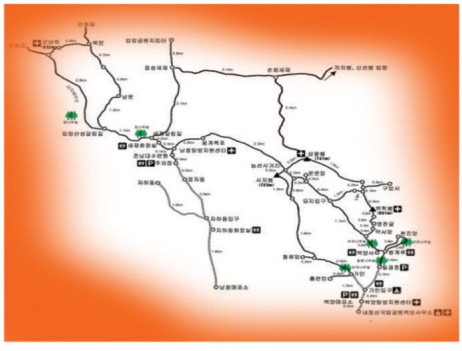
이고들빼기는 반그늘 혹은 햇볕 잘 드는 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혹은 두해살이 풀입니다. 원래 고들빼기라는 말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고씨 두 명과 백씨와 이씨가 발견한 풀이라고 해서 고둘백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고들빼기로 변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이고들빼기는 다른 고들빼기와는 다르게 가을에 피는데 꽃잎의 모양이 아이들의 앞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고들빼기는 다른 고들빼기처럼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 들녘에 수수한 꽃이 피는 이고들빼기는 순박함이란 꽃말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고 정감가는 꽃입니다.



이고들빼기는 9월과 10월 백암산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206 Mac1 CTP-2400-CMYK

이질풀

학명 | *Geranium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
쥐손이풀과




이질풀은 9~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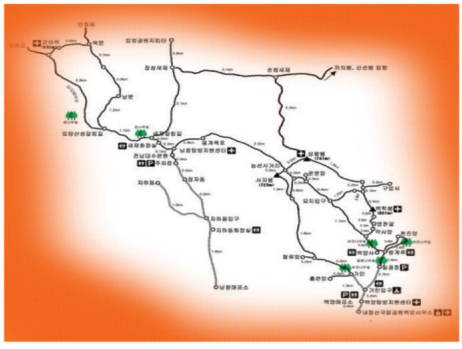
이질을 다스리는 풀

이질풀은 반그늘 양지의 숲 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이질풀의 이름은 이질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풀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꽃입니다.

실제로 한방에서 현초(玄草)라고 부르는 이질풀은 이질, 설사, 복통, 변비를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질풀은 주로 분홍색으로 피는데, 쓸쓸한 가을이 시작되는 숲 속에 마치 새색시처럼 작고 고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질풀의 꽃말은 '새색시' 입니다.

외로운 가을 들판에 새색시 같은 작고 고운 얼굴을 드러내는 이질풀은 가을산행에 작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질풀은 9월과 10월 백암산의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0 PM 페이지208 Mac1 CTP-2400-CMYK

투구꽃

학명 | *Aconitum jaluense* Komarov.
미나리아재비과




투구꽃은 9~10월

전진하는 병사와 같은 꽃

투구꽃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꽃입니다. 투구꽃은 식물이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덩이뿌리가 그대로 썩고 이듬해 그 옆에 있던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매년 조금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투구꽃이란 이름은 꽃 모양이 로마 병정의 투구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정말 투구의 모습을 닮았나요?

투구꽃은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신화의 영웅 테세우스를 죽이기 위해 마녀 메디아가 독이 든 술잔을 권하는데 이 때 사용된 독이 바로 투구꽃의 독이라고 합니다. 그늘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투구꽃의 꽃말은 '밤의 열림' 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꽃말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투구꽃은 9월과 10월 북문에서 갓바위까지 능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1 PM 페이지210 Mac1 CTP-2400-CMYK

하늘말나리

학명 | *Lilium tsingtauense* Gilg
백합과




하늘말나리는 8~9월

하늘을 향해 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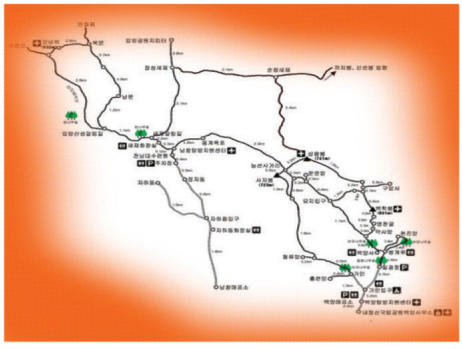
하늘말나리는 1m 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반그늘이고 비옥한 숲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리란 이름은 백합을 뜻하는 고유어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르는 '나으리' 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말나리는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 '하늘' 그리고, 잎이 말나리와 같이 돌려서 나온다고 하여 '말나리' 가 붙어 생겨난 꽃 이름입니다.

하늘말나리는 꽃잎에 주근깨 같은 반점이 나 있는데, 얼굴에 난 자주색 반점 때문에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옷 짓는 일만 하다 죽은 소녀에 대한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말나리의 꽃말은 순진, 순결, 변함없는 귀여움 등인데 마치 주근깨가 나 있는 장난꾸러기 꼬마 숙녀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된 듯합니다. 백암산의 초가을 숲 속에서 장난꾸러기 꼬마 숙녀 하늘말나리를 만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말나리는 8월과 9월 백암산의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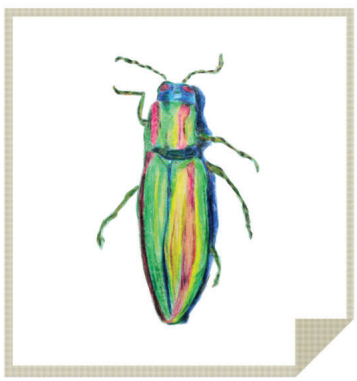
백암산의 동물들



반딧불이



사슴벌레



비단벌레



붉은박쥐



호반새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1 PM 페이지213 Mac1 CTP-2400-CMYK



어치



큰오색딱다구리



하늘다람쥐



삵

참고 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2004 내장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004. 국립공원연구원.
- 국립공원연구원.『2013 내장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2013. 국립공원연구원.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내장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7차년도 2011.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내장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8차년도 2012.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 솔 외.『약초도감』, 2010. ㈜넥서스.
- 이영노.『새로운 한국식물도감』Ⅰ. 3판, 2010. 교학사.
- 이영노.『새로운 한국식물도감』Ⅱ. 3판, 2010. 교학사.
- 정연옥 외 3.『야생화도감(가을)』. 2010. 푸른행복
- 정연옥 외 3.『야생화도감(봄)』. 2010. 푸른행복
- 정연옥 외 3.『야생화도감(여름)』. 2010. 푸른행복

참고 사이트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

유림문화-백암산의여름,가을 2014.11.3 4:1 PM 페이지215 Mac1 CTP-2400-CMYK



찾 아 보 기

가

가시여뀌 186
각시붓꽃 8
갈퀴나물 188
계요등 112
고마리 190
광대나물 10
광대수염 12
광릉골무꽃 14
괭이밥 16
굴거리나무 18
금난초 20
길마가지나무 22
까치수염 114
꼬마은난초 24
꽃마리 26
꽃며느리밥풀 116
꿩의바람꽃 28

나

나도물통이 30
나도수정란풀 118
남산제비꽃 32
내장금창초 34
노랑붓꽃 36
노루귀 38
노루발풀 120
노루오줌 122

다

닭의난초 124
닭의장풀 126
대흥란 128
돌나물 40
둥글레 42
땅나리 130
때죽나무 132

마

만주바람꽃 44
며느리밑씻개 192
물매화풀 194
물봉선 196
미나리냉이 46
미나리아재비 134

바

박쥐나무 136
백선 48
백양꽃 198
백양더부살이 138
백양사고불매 50
백작약 52
벌깨덩굴 54
범부채 140
변산바람꽃 56
병꽃나무 58
복수초 60
붉은대극 62
비자나무 64
뻐꾹나리 142

사

산괴불주머니 66
산딸나무 144
산수국 146
산자고 68
새박 148
생강나무 70
소엽맥문동 150
숫잔대 152
쑥부쟁이 200

아

아기단풍 72
애기똥풀 74
애기천마 154
약난초 156
양지꽃 76
얼레지 78
엉겅퀴 160
용담 202
원추리 160
윤판나물 80
으름덩굴 82
은꿩의다리 162
이고들빼기 204
이질풀 206
이팝나무 84
인동덩굴 86
일월비비추 164

자

자귀나무 166
자란초 168
자주괴불주머니 88
정금나무 90
조개나물 92
족도리풀 94
중의무릇 96
진노랑상사화 170
짚신나물 172

차

참나리 174

카

큰구슬붕이 98
큰꽃으아리 100
큰도둑놈의갈고리 176
큰방울새란 178
큰천남성 102

타

타래난초 180
털중나리 182
투구꽃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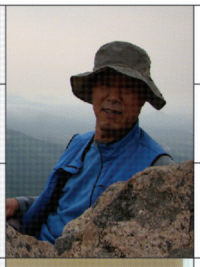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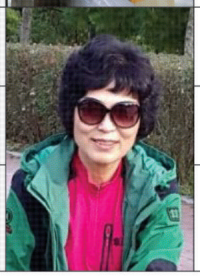
파

피나물 104

하

하늘말나리 210
현호색 106
흰괭이눈 108

참여하신 분들

	성명	김애란		성명	김형태
	활동기간	11년		활동기간	9년
	직업	담양하천습지 자연환경해설사		직업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성명	남혜경		성명	김호순
	활동기간	9년		활동기간	9년
	직업	숲해설가		직업	짚풀공예가
	성명	노금선		성명	김미숙
	활동기간	9년		활동기간	7년
	직업	조선대학교 한국학 자료센터 연구원		직업	사회복지사
	성명	노예영		성명	윤혜경
	활동기간	7년		활동기간	7년
	직업	사회복지사		직업	하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성명	정미화		성명	이금옥
	활동기간	7년		활동기간	2년
	직업	숲해설가		직업	숲해설가